

곽도규, 호주리그 참가...“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겠다”



곽도규



6위로 시즌을 마감한 '호랑이 군단'이 다시 뭉친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31일 인천 공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다.

김중국 감독이 이끄는 마무리 캠프단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아쉬움 가득한 올 시즌을 돌아보고, 내년 시즌을 위한 밭갈이를 그린다.

2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는 빠진 이름들이 있다. 일본 오키나와가 아닌 호주로 가는 선수들도 있다.

KIA는 오는 11월 17일 개막하는 호주 프로야구 리그(ABL)에 김기훈·김현수·홍원빈·곽도규(이상 투수)와 내야수 박민 등 5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캔버라 캐발리(Canberra Cavalry) 소속으로 ABL에 참가해 내년 1월 21일까지 총 40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제 2의 최지민'을 찾기 위해 준비된 호주리그다. 지난 시즌 질롱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 참가했던 KIA '루키' 최지민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2년 차였던 올 시즌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

KIA 선수단 오늘 오키나와로 김기훈 등 5명은 호주에 파견 1군 14경기에 출전한 곽도규 "접전 상황 역할 경험하고 싶다"

면서 팀은 물론 국가대표 필승조로 발돋움했다. 이번 겨울에도 유망주들의 호주리그 파견을 준비했던 KIA는 질롱코리아의 리그 참가 불발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에 심재학 단장이 직접 캔버라 캐발리 구단주를 만나 선수단 파견에 합의하면서 이번 호주행이 결정됐다.

호주리그에 참가하는 KIA 선수 중 '막내'인 곽도규는 경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공주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든 좌완 곽도규는 지난 3월 연습경기에서 빠른 공과 배짱투로 눈도장을 찍으면서 1군에서 프로 첫 시즌을 열었다.

패기로 프로 무대에 뛰어든 곽도규는 높은 벽도

실감했지만 1군 14경기에 나와 가능성도 보여줬다.

곽도규는 "1군에서 시작하고 1군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다. 빠른 구속과 (타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준 것 같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호주에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곽도규는 "어려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호주 가서 많이 배우고 오겠다. 시합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시합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 쌓고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도규가 바라는 경험은 '접전 상황'에서의 역할이다. 1군에서 경쟁한 타자들을 상대하기는 했지만, 일방적인 흐름일 때 주로 마운드에 올랐다. 곽도규는 접전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험을 쌓아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곽도규는 "접전인 상황에서 나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호주에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경험을 많이 쌓고 돌아오겠다. 올 시즌 보여준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2024시즌 3월 23일 개막한다

올스타브레이크 줄고 더블헤더 일정도 편성

우천취소 경기 증가에 따라 2024시즌 KBO리그 진행이 변화가 있다. 개막 일정이 앞당겨지고, 올스타브레이크가 줄어들고, 더블헤더 일정도 편성된다.

KBO는 지난 29일 2024 KBO 리그 경기일정 작성 원칙을 발표했다.

이사회를 통해 마련된 새 경기 일정 작성 원칙에 따라 내년 시즌 금·토요일 경기가 취소될 경우, 다음날 더블헤더가 진행된다. 이는 4월부터 적용되며 혹서기인 7·8월에는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는다. 더블헤더가 편성될 경우 팀 당 특별 엔트리 2명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개막일도 1주일 앞당기기로 하면서 내년 시즌은 3월 23일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스타브레이크도 7일에서 4일로 단축된다.

2024년 올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6일 열리며, 새로운 원칙에 따라 올스타브레이크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이다. 올스타전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우천 취소 경기 급증에 따라 경기일정 작성 원칙이 새로 적용된다. 올 시즌 우천 취소 경기는 2022년과 비교하면 69%(42경기→72경기)나 증가했다.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천취소 경기가 속출하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는 10월 17일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포스트시즌 일정도 늦어지면서 11월 7일 한국시리즈가 시작된다.

KBO는 야구 팬들의 불편 최소화와 선수단 부상 방지를 위해 정규시즌 진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 11월에 프리미어12(11월 10~24일)가 열리는 만큼 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서도 새로운 경기 일정 작성 원칙이 마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상 지도자, 선수들이 3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승석 코치, 강경민, 송혜수, 박조은,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전용태, 박하림, 이재경, 김국영.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항저우AG 입상선수·지도자에 포상금

육상 노승석 코치 등 14명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8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광주를 빛낸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3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입상지도자와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수여 대상자는 육상 노승석(광주시청) 코치를 비롯해 근대5종 전용태(광주시청), 다이빙 이재경·박하림(이상 광주시체육회), 핸드볼 강경민·박조은·송혜수(이상 광주도시공사), 육상 김국영·고승환(광주시청), 펜싱 강영미(광주서구청), 양궁 안산(광주여대)·최미선(광주은행), 카누 정주환(국민체육진흥공단), 자전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4명이다.

근대5종 전용태는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양궁 안산은 여자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최미선은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강영미는 여자 에페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이빙 이재경은 은 2개와 동 1개를, 박하림은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핸드볼 대표팀 강경민·박조은·송혜수는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육상의 노승석 코치와 김국영·고승환은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8초74의 한국 타이 기록으로 37년 만이자 아시안게임 역대 두 번째 남자 계주 동메달을 합작했다. 카누 정주환이 은메달을, 자전거 이주미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광주 태극 전사들의 활약은 대한민국의 종합 3위 달성에 이바지를 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들의 선전을 격려하며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200만원, 동메달 1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입상한 지도자와 선수들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힘을 북돋아 주자는 취지로 포상금을 수여했다"며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출전해 값진 메달로 광주 시민께 감동을 선사해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새로운 황금곰비 29일(한국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 르 블레에서 열린 2023~24시즌 프랑스 리그1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골을 합작한 이강인(왼쪽)과 음바페가 열싸우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도움·음바페 골 ... PSG 3-2 승리

리그1, 10라운드 브레스트전

이강인이 세계적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배달하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는 29일(한국시간) 오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 르 블레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1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레스트를 3-2로 이겼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장기인 날카로운 킥 능력을 뽐내며 PSG 입단 후 처음으로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1-0으로 앞선 전반 28분 후반에서 공을 잡고 역습을 전개한 이강인은 한 박자 빠른 왼발 아웃프린트 킥으로 전방으로 뛰는 음바페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전달한 것이다.

이 공을 받은 후 몇 차례 드리블을 통해 단숨에 상대 페널티지역까지 전진한 음바페의 오른발 슈팅이 수비에 맞고 굴절돼 PSG의 두 번째 득점으로 이어졌다.

리그1는 홈페이지 문자 중계에서 음바페의 득점 장면을 설명하며 "속공 상황에서 공을 뿌린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았다"라고 표기했다.

이는 이강인이 PSG 입단 후 처음으로 올린 어시스트로, 정규리그에서 작성한 첫 공격포인트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AC 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3-0을 만드는 PSG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또 한 번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낸 것이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음바페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을 찬 이강인은 전반 22분에도 곤살루 하무스와 2대1 패스를 통해 페널티지역에 진입한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브레스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후반 29분 비타나와 교체될 때까지 74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이강인에게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7.63의 준수한 평점을 줬다.

PSG는 전반 16분 2006년생 신성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기습적인 오

른발 중거리 슈트로 먼저 브레스트의 골문을 열었다.

이강인과 '철혈 호흡'을 보여준 음바페가 추가 골까지 터뜨린 PSG는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전반 43분 스티브 무니에·후반 7분 제레미 르드아롱에게 연속으로 실점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후반 39분 랄랄 홀로 무아니가 문전에서 수비와 충돌하다가 넘어졌고, 비디오판독(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되며 PSG에 마지막 기회가 왔다. 키커로 나선 음바페의 첫 번째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으나, 음바페가 재차 차 넣어 멀티 골과 함께 3-2 스코어를 완성했다. 9, 10호 골을 넣은 음바페는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했다.

어렵게 승점 3을 챙긴 2위 PSG(승점 21·6승 3무 1패)는 선두 OGC 니스(승점 22·6승 4무)와 계속 승점 1 차로 뒤쫓았다.

반면 시즌 3패째를 당한 브레스트(승점 15·4승 3무)는 6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